

“조국 법무장관 수행 적합” 18% 그쳐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부적합” 48%...20·30대 판단 유보 답변 많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라는 의견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수행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48%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아직까지는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34%로 나타났다. 부적합 응답 비율은 전 연령에 걸

쳐 적합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30대는 판단 유보의 답변이 부적합보다 많았다.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우세했던 지난해 여론(적절 42%, 부적절 36%)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확대된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가장 해명이 필요한 의혹으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특혜 관련 의혹이 6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의혹이 13%, 운동원원 소송 의혹이 10%로 뒤를 이었다. '모름' 응답은 12%로 집계됐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우세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25%에 그쳤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조사요청 대비 15.2%, 조사참여 대비 85.9%를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뉴스1

홍준표 “조국 사태, 최순실 사태와 뭐가 다른가”

“좌파·우파가 윤리적 판단 기준 조차 다른 나라 돼 버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조국 사태”가 ‘최순실 사태’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막힌 나라로 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젠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조차 좌파와 우파가 다른 나

라가 돼 버렸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하긴 그간 기득권층으로 행세해 오던 자유한국당이었으니 (상대방 측이) 조국을 비난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3일 “박근혜 민고 나대던 최순실이나 문재인 믿고 나대는 조국이나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 여러분은 이를 용납하시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도질당하고도 그대로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해지나 야당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손학규 “당 내홍 정리 들어갈것...유승민·안철수 기다리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손학규 선언 이후 “이제는 당의 내분과 내홍이 정리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를

참여성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MBN의 ‘일요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손학규 선언’에서 유·안 전 대표에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 의사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분들이 당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 대화에 응할 뿐 아니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일으켜 세우는 데 협조하리

라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손학규 선언 후 유·안 전 대표 쪽에 소통이 되는 분들을 만났다”며 “안 전 대표는 독일에 있고, 유 전 대표도 그렇게 소통이 쉽게 되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3당에서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같이 협력하는 길을 찾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나. 유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기 남아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가자”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꼭 손학규 체제여야만 하는지’라는 질문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건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통합하면 또 다시 양당 체제의 극한 대결로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유·안 전 대표 만나 소통 시도...남아서 한국 정치 바꾸자” “한국당과 통합하면 다시 양당제...막아야 할 사명 있어”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를 내려놓겠다”

황교안의 ‘보수 통합’ 실현 가능성은

최근 보수 정치권에서는 연일 ‘보수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합집산이 다시 꿈틀대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특정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 통합’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아직 불응표가 불분명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자리에서 보수 우파 세력의 결집을 강조했다.

다. 다만 황 대표와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보수 야권 통합으로 이어질지 숙단하기 어렵다. 야권 통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취할 수 있는 여러 움직임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실현하려면 각 당 공천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움직임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야권 통합을 이뤄낸다고 가정하더라도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이

바른미래 향한 러브콜...“劉없이 미래 없어”·安 측근 초청 강연 安측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총선 가까워야 극적 효과

그는 “지금까지 20번 총선에서 우리가 세 번을 졌고, 이 앞에 선거에서 졌다. 왜 졌을까. 분열 때문”이라며 “저는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고 보수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은 비단 유 전 대표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오는 27~28일 정기국회 전 의원 연찬회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측근 인사로 평가되는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연례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정기국회 전 연찬회에 김 교수를 초청한 것을 두고 결국 안 전 대표까지 포함한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워야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은) 황 대표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각 정치인들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지소미아 문제 등이 터지면 따라 ‘분열하면이 시기 놓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황 대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파 통합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 측도 황 대표 발언에 대해 크게 평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 대표의 우파 통합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던져보는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것”이라며 “실제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의 한국당 연찬회 초청 강연에 대해서도 “강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